



〈이집트 카이로대학교 여대생들〉 PHOTO BY 유해석

꾸란을 '알라가 행한 기적'이라고 여기며 꾸란에 깊은 존경심을 갖는다. 그들은 손을 씻은 후에 꾸란을 만지고, 꾸란을 허리 아래 들지 않는다.

2. 전통(Hadith)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언행록으로 무함마드가 생전에 말한 것들과 행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디스를 순나(Sunnah, 관행)라고도 부르는데, 전체 무슬림 인구의 80%는 이 '순나'에서 유래된 수니 무슬림들이다. 무슬림들은 알라가 무함마드의 언어와 행동을 무슬림에게 모델로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디스를 꾸란에 이어서 제2의 경전으로 여긴다. 무함마드가 죽은 뒤에 2, 3대에 걸쳐서 많은 하디스가 있었다. 그러나 하디스는 구체적 인 내용과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여섯 개의 하디스만이 9세기에 인정되었다. 그 가운데 2개의 하디스가 가장 권위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그 저자는 알 부카리(A.D.870)와 알 무슬림(A.D.875)이다. 알 부카리는 수없이 많은 무함마드 언행록을 살살이 조사하여 20만 개를 모았는데 그 중에 7,300개만을 신뢰할만한 것으로 간주해서 하디스로 편집했다. 그리고 이슬람은 종파에 따라서 채택하는 하디스가 다른데, 시야파의 경우에 다른 하디스를 사용하고 있다.



유해석 총신대학교를 졸업, 영국 웨일즈대학교 신학부에서 공부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파송 선교사, OM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1990년부터 이집트 빈민가에서 사역하였으며 지금은 영국과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FIM국제선교회 대표로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역하고 있다. 총신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였으며, 한국선교협의회(KWMA) 실행위원과 유럽코스타 강사 및 선교분과장, CTS 기독교 TV 특강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토마스 목사전, '만화 이슬람,' 등이 있다.

제대로 된 메카 순례방법, 금지된 것과 허락된 것,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 등이었다. 이들은 또한 법을 신학으로부터 구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이슬람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이슬람의 각 교파마다 권위 있는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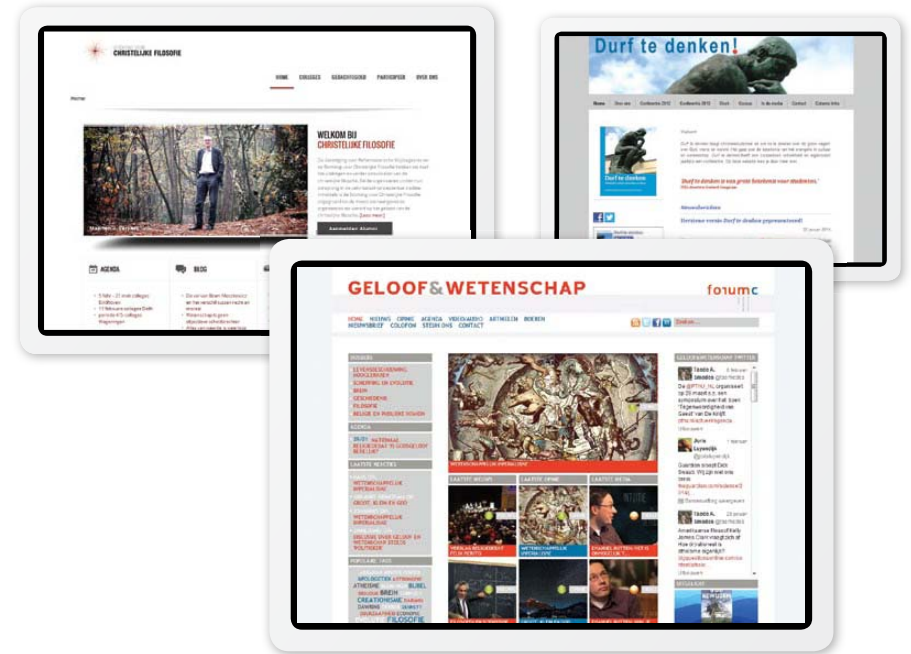
3. 이슬람 법(Sharia)

초기 무슬림 학자들은 신학보다 법학을 연구했다. 그들이 보기에 초기 꾸란과 하디스에는 신학적 요소와 법적 요소 사이에 구분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꾸란과 하디스를 해석해서 새로운 이슬람법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메카 순례방법, 금지된 것과 허락된 것,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 등이었다. 이들은 또한 법을 신학으로부터 구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이슬람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로써 이슬람의 각 교파마다 권위 있는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샤리아 법도 이런 연구의 산물이다. 샤리아 법에는 다섯 개의 중요한 이슬람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공적으로 사람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의무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까지 어기는 것이 된다.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는 샤리아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2014년 19번째 FIM 이슬람선교학교가 2014.3.13.-5.15. 매주 목요일 저녁 7:30-9:30(10주간) FIM선교센터에서 있습니다. 전화로 등록을 받습니다. (문의 1599-5591)

ForumC(forumc.nl) 및 Geloof & Wetenschap(www.geloofenwetenschap.nl)

최용준 (학회지<신앙과 학문>편집위원장, 한동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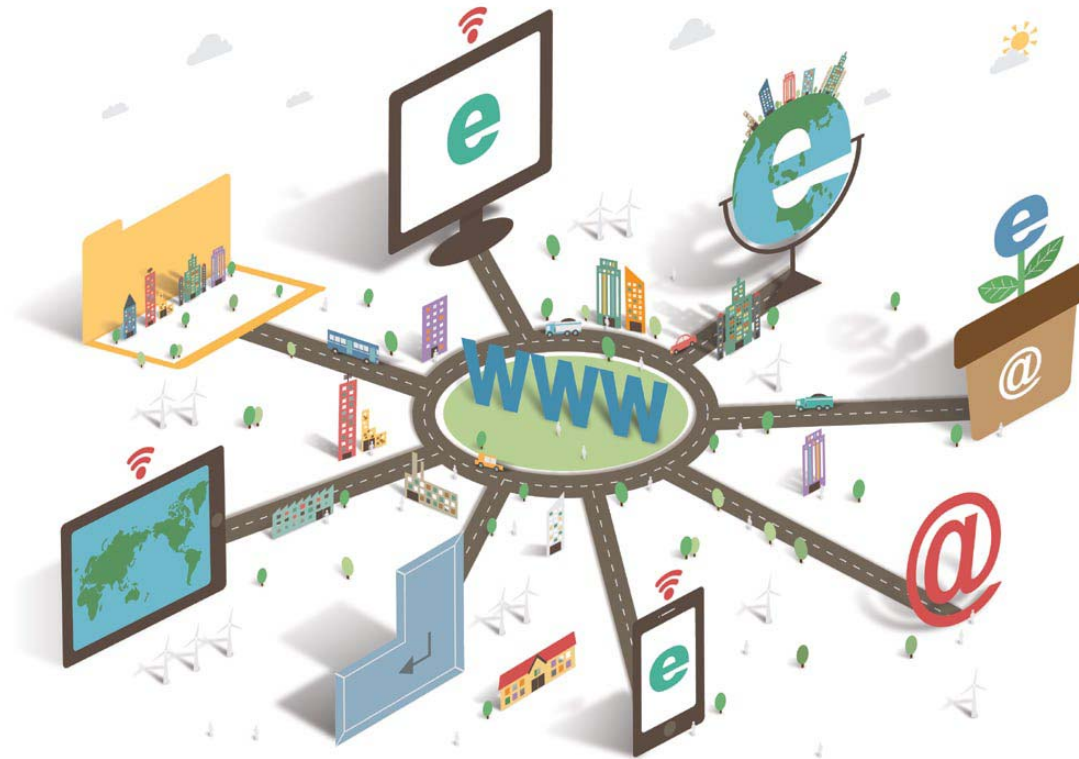


이 둘은 네덜란드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세계관 사이트라 할 수 있다. 먼저 ForumC는 신앙, 학문, 사회에 대한 하나의 포럼으로 기독교 신앙을 학문과 사회의 중요한 질문들과 연결시키고 있다. 다양한 출판물들과 학술적 저널인 Radix를 발행하고 있으며, ForumC 토론회 및 심포지움들을 개최하여 각 학문 분야 기독교학자들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하는 www.geloofenwetenschap.nl도 운영하고 있다.

ForumC는 기독교 신앙을 사회, 문화 및 삶의 다양한 질문들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열린 자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과 사회 그리고 학문 분야에서 섬기며 두각을 나타내도록 공헌하고 있다. 이 단체가 다른 기관들과 구별되는 것은 반성과 토론을 통해 도출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기독교 서클 내외에 동일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영향력 있는 만남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ForumC는 성경을 신뢰할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 그 기초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고 있고, 이 세계는 죄로 오염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구속되며 갱신됨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고, 그분을 따르도록 부르신다. 또한 성경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며 함께 이 사회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분명히 제시하도록 도우신다. 이러한 기초 위에 기독교 신앙적 전통 내외에 있는 모든 이들과 열린 관점에서 대화할 수 있다.

대표로 섬기고 있는 에포 브라운스 박사(Dr. Eppo Bruins)는 자연과학을 공부하여 1995년 우트레흐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MIT에서 연구한 후 현재 네덜란드 기술 연구소(STW) 소장 및 지역 교회 리더로 봉사하고 있다. 회계적으로는 빈 반 강켈(Wim van Ginkel) 외에 이다 젯스트라(Ida Zetstra), 크리스 크루즈 교수(Chris Kruse), 아네커 드 볼프 박사(Anneke de Wolff) 등이 섬기고 있다. 그 외에 많은 자문위원들과 실행위원들이 있는데, 코스 피셔(Cors Visser) 소장, 알리 메이포겔(Alie Meyvogel) 비서, 플로리스 스프롱크(Floris Spronk) 프로젝트, 압 플립스(Ab Flipse) 편집 및 자문위원, 아넬루스 반 베이스텐(Anneloes van Beesten) 마케팅 및 홍보원, 엘리아스 드 브라운스(Elias de Bruijne) 행정원 등이 있다. 또,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프리조 리더(Friso Leder), 정기 간행 잡지 <과감한 생각 Durf te Denken>을 편집하는 디안느 놀른(Dianne Nolen)도 있다. 나아가 이 단체 내에는 기독교 법률인, 국제협력, 기독교 연과학자, 예술인 등 다양한 소그룹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기독교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기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www.durftedenken.org 참조)



다음으로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추구하는 학자들의 활동인 www.geloofenwetenschap.nl에는 신앙과 학문에 관한 다양한 뉴스, 오피니언, 배경적인 정보 그리고 개인적인 간증 등도 포함되어 있다. 신앙과 학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힘으로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논의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관계는 갈등, 조화, 독립, 대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는 신앙과 학문의 다양한 면들을 조망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여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 사이트는 신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위의 두 웹사이트는 네덜란드에서 '학문과 종교의 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템플턴 세계 자선기금(Templeton World Charity Foundation)의 후원으로 제작되었다. 위의 두 웹사이트의 책임 편집인들은 아넬루스 반 베이스텐(Anneloes van Beesten), 압 플립스(Ab Flipse), 플로리스 스프롱크(Floris Spronk), 기타 자원봉사자들이다.

마지막으로 이 주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철학협회(De Vereniging voor Reformatorische Wijsbegeerte & de Stichting voor Christelijke Filosofie: <http://www.christelijkefilosofie.nl>)이다. 이 단체는 우리 동역회의 <신앙과 학문>과 같은 기독교 철학 학술지인 <Philosophia Reformata>를 일년에 두 번 발행하고 있으며, <월드뷰>와 유사한 <Sophie>를 두 달에 한 번 발행하고 있다. 주소는 세 단계 모두 동일하게 Utrechtseweg 1A, 3811 NA Amersfoort, The Netherlands이며, Email은 전자는 info@forumc.nl, 후자는 info@christelijkefilosofie.nl이며, 전화는 전자는 +31 33 4647770, 후자는 +31 33 4328288이다. 비록 웹사이트가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지만 대화는 영어로 가능하므로 모쪼록 우리 동역회가 이 사이트들을 잘 활용하여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용준 서울대(B.A),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M. Div.),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철학부(Drs.), 남아공 포체프스트룸(현 노스웨스트) 대 철학부(Ph.D)에서 수학하였다. 필론한빛교회,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역임. 한반도국제대학교대학원 교수 역임하였으며 현재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및 벨기에 복음신학대학원(ETF) 객원교수이자 한동대 글로벌에디슨학부 교수 및 학문과 신앙연구소 소장으로 있다.